

# 대명사의 화시적 기능과 조음적 기능: 실어증 환자를 중심으로

황유미\*, 남기춘\*\*, 강명윤\*

beleco@hanmail.net, kichun@kucn.korea.ac.kr, mykang@kucn.korea.ac.kr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Difference between Deixis and Anaphora in Aphasics

Yumi Hwang\*, Kichun Nam\*\*, Myung-Yoon Kang\*

\*Department of Linguistics,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 요 약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시적(deictic)인 대명사와 조음적(anaphoric)인 대명사의 처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각 화시적인 대명사와 조음적인 대명사로 구분될 수 있다. 화시적인 대명사란 발화상황에서 직접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를 지칭하며 언어적 표현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황 의존적인 대명사를 말하고 조음적인 대명사란 앞선 문맥에서 제시된 언어표현을 선행사로 되받는 대명사를 말한다. 인칭 대명사 가운데 1인칭('나')과 2인칭('너')은 화시적인 대명사로, 3인칭 '그'는 조음적인 대명사로,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는 화시와 조음의 혼합된 것으로 보였다. 지시 대명사의 경우 '이-/저-'는 화시적인 용법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그-'는 조음의 '그-'와 화시의 '그-'로 나누었다.

실험 1은 화시적인 1,2인칭 대명사 처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실험 1의 결과 3명의 브로카 환자와 1명의 실명증 환자는 1, 2인칭 대명사를 비교적 잘 처리하였다. 실험 2는 인칭 대명사 가운데 화시적인 요소와 조음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3인칭 재귀 대명사 '자기'와 조음적 성격의 3인칭 대명사 '그'의 처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험 2의 결과 3인칭 재귀사 '자기'의 경우 실험 1보다는 처리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3인칭 대명사 '그'보다는 잘 처리하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 3은 지시 대명사 관련 실험으로서 화시적 용법의 '이-/그-/저-'와 조음적 용법의 '그-'의 처리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 3의 결과 지시 대명사의 처리에 있어서 화시적 용법의 '이-/그-/저-'는 비교적 잘 처리하였으나 조음적 용법의 '그-'를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실험 1, 2, 3에서 실어증 환자들은 화시적 대명사를 조음적 대명사보다 더 잘 처리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실어증 환자들이 뇌손상으로 인해 문법적 언어처리에는 어려움을 보이지만 비언어적인, 세상 지식과 관련된 화시적 대명사의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대명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화시와 조음의 처리가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명사(pronoun)는 명사나 명사구를 대신하여 쓰이는 문법범주이다. 대명사가 사용되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언어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비언어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조음적(anaphoric) 지시 기능으로 후자의 경우를 화시적(deictic)

지시 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

- (1) 철수는 영수가 그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화를 냈다.
- (2) 지훈이가 경은이를 자기가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 (3) 철수가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 그 책(그것)은 재미있었다.

- (4) 수진아와 미션아는 전화로 얘기한다.  
수진: 너(는) 오늘 학교에 갔니?  
미션: 아니, 나(는) 오늘 학교에 안 갔어.
- (5) 아버지가 연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연희야, 그것 좀 다오.  
연희: 이거요?

언어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대명사란 어떤 명사나 명사구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이미 알려졌을 경우, 그 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가리킬 때 사용된다. 선행 문맥에서의 언어 표현을 되풀이하여 가리키는 것이므로 언어 표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 (1), (2), (3)은 선행 문맥에서 제시된 명사를 대명사가 다시 되받고 있다. 각각의 대명사 '그', '자기', '그것(그 책)'은 각각 문맥 내에서 동지표(coindex)된 명사를 선행사(antecedent)로 취하고 있다.

언어외적 표현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명사란 선행 문맥 속의 언어 표현을 되받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언어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 맥락을 통해 대명사가 이해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 (4), (5)는 대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4)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너'와 '나'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예문 (5)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화 참여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국어의 대명사 체계는 전통문법이나 구조주의 문법서에서는 대개 1인칭, 2인칭, 3인칭, 부정칭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서정수, 1996) 국어의 대명사 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서정수(1996)를 기준으로 삼되 '재귀 대명사1)'에 관한 설정은 달리하기로 한다.

- 1) 서정수(1996)에서는 재귀 대명사를 대명사의 독립적인 하위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각 인칭별로 재귀 대명사가 있다고 보았는데 본 고에서는 '자기'를 3인칭 재귀 대명사로 규정하되 인칭대명사의 하위 분야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1. 서정수(1996)의 대명사의 갈래

갈래	인칭	대상	보기
정칭 대명사	1인칭	말하는이	나, 저
	2인칭	말듣는이	너, 당신
	3인칭	제3의 인물 사물	그, 그이 그것, 저기
재귀 대명사	각 인칭	사람	자기, 자신
		사물	자체
부정칭 대명사	3인칭	사람	누구, 아무
		사물	무엇, 어디
의문 대명사	3인칭	사람	누구
		사물	무엇, 어디

본 논문에서 언급되어질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란 표1.에서 정칭(定칭稱) 대명사의 범주에서 속한 것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1, 2, 3인칭 대명사를 말하고 3인칭 가운데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를 지시 대명사로 간주하였다. 특히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대표적인 형태인 '나'와 '너', '그', '자기'에 국한하였고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이것/그것/저것'이나 '여기(이곳)/거기(그곳)/저기(저곳)'이외에 '이-/그-/저-'에 명사가 결합된 형태도 포함시켰다.

우선적으로 인칭 대명사 내에서 1인칭('나')과 2인칭('너')은 화시적 기능이 지배적인 것으로 3인칭('그')은 조용적 기능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3인칭 재귀 대명사 '자기'의 경우는 화시적인 기능과 조용적 기능이 혼재된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이-'와 '저-'는 화시적 기능이 지배적인 반면에 '그-'는 화시적인 기능과 조용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화시적 성격의 '이-/그-/저-'와 조용적 성격의 '그-'로 나누어 위치를 설정해 보았다. 아래의 표2.와 표3.과 같이 도식하여 볼 수 있다.

표2. 인칭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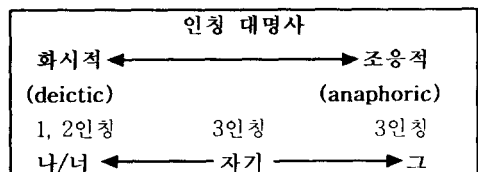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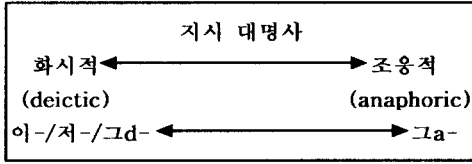


표3. 지시 대명사



기존의 생성문법적 측면에서는 3인칭 재귀사 '자기'와 3인칭 대명사 '그'를 결속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속이론에서는 선행사의 개념을 결속에 의하여 파악하고, 그 결속관계의 가부에 관한 영역은 지배범주의 개념에 따라 규정한다. 대용사, 대명사류, 지시표현은 각각 다음의 결속원리를 갖는다.

**결속 원리:**

- (A) 대용사(anaphor)는 그의 지배범주의 내부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 (B) 대명사류(pronoun)는 그의 지배범주의 내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C) 지시표현(referential expression)은 자유로워야 한다.

재귀사 '자기'는 대용사에 속하는 범주로 결속 원리 (A)를 만족해야 하고, 대명사 '그'는 결속 원리 (B)를 만족해야 한다. 즉, '자기'와 '그'는 결속의 영역만 달리는 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둘 다 조용적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본다. 생성문법의 설명을 따르면 표2.의 인칭대명사에서 '자기'와 '그'는 조용의 범주에 같이 놓여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표2.와 표3.을 Kuno(1987)의 직접 담화 관점(Direct Discourse Perspective)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특히 생성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와 '그'의 차이점을 직접 담화 관점에서 재고해 본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3인칭 재귀사 '자기'의 경우, 직접 화법 견지에서 보면 결국 대화 참여자인 '나'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 1)** 수진이는 철이에게 자기가 그곳에 가겠다고 말했다.

· 수진이가 철이에게 "내가 그곳에 가겠어"라

고 말했다.

위의 예문에서 '자기'는 곧 '수진'을 가리킨다. 결국 '자기'는 화자와의 동일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위에서 주장한 '자기'의 화시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실험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들이 화시적인 기능과 조용적인 기능의 대명사 처리에 있어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화시적인 현상은 비언어적인 현상으로 조용적인 현상을 언어적인(언어표현 의존적, 문법적) 현상으로 구분할 때 실어증 환자들은 조용적인 기능의 대명사를 선별적으로 더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뇌손상으로 인해 문법적 언어처리는 잘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세상 지식과 연관된 화시적 대명사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동일한 화시적 기능을 가진 대명사 가운데서 인칭과 지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1**

실험 1은 1, 2인칭 화시적 대명사 처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어증 환자들은 화시적인 대명사의 처리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피험자**

**1. 명칭성 환자 S**

57세의 남자로 대졸학력을 지닌 회사원이었으며 서울말씨를 사용하고 오른손잡이었다. 1998년 8월 1일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 (MRI)에서 중심 반란원, 뇌실주위 백질, 미핵 두부, 내포의 전방, 기저핵, 도, 측두엽 전방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과 함께 출혈성 전이 가 함께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 뇌동맥 조영술에서는 좌측 경동맥, 전뇌동맥과 중뇌동맥의 분절에서 혈관이 좁아진 사실이 관찰되었다. 1998년 8월 12일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서 한국어판 Western Aphasia Battery (이하 K-WAB)을 이용해 1차 언어평가를 시행에서 자발적인 발화는 15/20점이고

낱말찾기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청각 이해력은 6/10점이고 말 따라하기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이름대기에서 0/10점으로 실물을 보고 이름대기와 생각하여 이름대기에서 모두 심한 저하를 보였다.

## 2. 표현성 환자 C.M.S

41세 여자로 오른손잡이이며, 대졸의 학력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1999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제 2 경추 골절, 골반 골절등 발생하여 제 2경추 골절에 대하여 수술 받았다. 1999년 12월 22일 실시한 뇌스펙트(brain SPECT)상 우측 측두엽 내하부에 혈액순환의 저하 소견을 보였다. 오른쪽 상하지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1999년 11월 17일 실시한 말-언어능력 평가 결과, 짧은 호흡, 음도 및 음질의 변화, 과비성, 조음기관 기능 저하로 인한 조음명료도의 저하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도의 마비성 조음장애를 나타내었다. 언어측면에서는 한국어판 K-WAB을 일부 실시한 결과 스스로 말하기에서 19/20 점, 알아듣기 9.2/10점, 따라말하기 9.4/10점, 이름대기 8.9/10점 등으로 언어의 표현 및 이해능력이 경미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나 실어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았다.

## 3. 표현성 환자 P

37세 남자로 오른손잡이이며, 대졸의 학력에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998년 8월 갑자기 발생한 의식 소실로 고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 촬영상 좌측 전두엽 백질까지 확장된 좌측 뇌기저핵 출혈로 진단받았고, 다음날 개방성 두 개골 절제후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1998년 10월 8일 실시한 한국어판 K-WAB 결과, 심한 Broca 유형의 실어증으로 평가되었다. 스스로 말하기에서 1/20 점, 알아듣기에서 6/10점, 따라말하기에서 2/10점, 이름대기에서 0/10점을 받아 실어증 지수는 18/100점이었다. 1998년 12월 5일, 발병 3개월 후 실시한 2차 평가(K-WAB)에서는 스스로 말하기 14/20점, 알아듣기 10/10 점, 따라말하기 6.3/10점, 이름대기 6.3/10점, 실어증 지수 73.2점으로 초기평가에 비해 크

게 향상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실시한 3차 평가 결과, 스스로 말하기 15/20점, 알아듣기 10/10점, 따라말하기 9.4/10점, 이름대기 8.4/10점, 실어증 지수 85.6점으로 경도의 Broca 유형의 실어증을 나타내었다.

## 4. 표현성 환자 C.B.R

피험자 C는 37세의 오른손 잡이 대졸 남자로서, 1999년 10월 15일 일시적인 마비성 구음장애와 오른 쪽 팔의 약화, 머리 뒤쪽의 두통과 가슴의 동통으로 인해 응급실을 경유, 신경과로 입원하였다. 1999년 10월 25일 뇌컴퓨터 단층 촬영과 뇌혈관(동맥) 조영술 결과 모야모야병(Moya Moya disease)으로 진단받고, 신경외과로 의뢰되어 12월 7일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오른쪽 편측의 근 약화로 재활의학과에 의뢰되어 물리·작업치료 받고, 1999년 12월 16일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언어치료실에 언어평가와 치료 의뢰되었다. 첫 평가 당시 사전면담과 실어증 감별검사(based on 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실시한 결과, 구강운동 기능은 움직임시 좌우편차 크고 구강 실행증과 착어 등으로 비언어적·언어적 민첩성 모두 어려움 매우 컸다(50% 미만의 수행력). 언어이해에서도 청각적이해에 관련한 과제 전반에서 중증도 이상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언어표현에서도 착어와 구두 실행증 등으로 인해 주로 몸짓에 의존한 단편적인 의사표현과 따라말하기 가능한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의사소통 가능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본 환자는 의사소통 양태 전반에 어려움 있으나 그 중 유창성등 언어 표현면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Broca's aphasia 유형으로서, 의사소통시 청자의 부담이 매우 큰 실어증 등급척도(0-5) 1 정도에 해당되는 상태였다.

**실험 재료 및 설계** 실험재료는 총 20문항으로 채워넣기와 골라넣기 과제로 설계되었다. 실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문2)** 희선이가 영수에게 "나는 너를 데리러 가겠어"라고 말했다.

질문: 밑줄 친 '나'는 누구입니까?

- ① 나 ② 너 ③ 희선 ④ 명수

예문3) 재범이와 혜숙이는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재범: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혜숙: ( ) 클래식이 좋아.

- ① 나(는) ② 너(는) ③ 재범이는 ④ 혜숙이는

실험 절차 피험자에게 실험 재료를 제시하고 한 문항씩 읽어보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지시하였다. 피험자가 답을 고르면 실험자가 받아 적었다.

### 결과 및 논의

실어증 환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화시적 대명사를 처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5. 실험 1의 결과

실어증	명칭성 (S)	표현성 (C.M)	표현성 (P)	표현성 (C.B)
나/너 (화시적)	70%	85%	75%	100%

### 실험 2

실험 2는 3인칭 대명사 관련 실험으로 조용적 기능의 대명사('그')와 화시와 조용이 혼합되어 있는 대명사('자기')의 처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화시를 상황 의존적인 것으로 조용을 언어표현 의존적인 것으로 볼 때, 실험 2에서 실어증 환자들은 보다 문법적인 성격의 조용적 대명사 '그'의 처리를 조용과 화시의 중간에 있는 '자기'보다 더 못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험자 실험 1에서와 동일한 피험자.

### 실험 재료 및 설계

풀라닝기 과제로 설계되었는데 각각 3인칭 재귀 대명사 '자기' 관련 문항 15개와 3인칭 대명사 '그' 관련 문항 15개로 구성되었다. 실험 문항은 아래와 같다.

예문4) 기영이는 재석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 ① 기영 ② 재석 ③ 기영 또는 재석

예문5) 윤정이가 정현이를 자기가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질문: 누구의 방으로 안내했습니까?

- ① 윤정 ② 정현 ③ 윤정 또는 정현

실험 절차 실험 1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어증 환자들은 화시와 조용의 중간에 위치한 3인칭 재귀 대명사 '자기'를 조용적 대명사 3인칭 '그'보다 더 잘 처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1과 비교하여 볼 때 화시적인 대명사를 제일 잘 처리하고 중간적인 것을 다음으로, 조용적인 대명사를 가장 잘 처리하지 못하는 수행의 선별적인 손상을 보였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인칭 대명사가 기능적 측면에서 화시와 조용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실험 2의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

표6. 실험 2의 결과

실어증	명칭성 (S)	표현성 (C.M)	표현성 (P)	표현성 (C.B)
자기 (화시조용)	40%	73.3%	60%	73.3%
그(조용)	26.6%	53.3%	40%	53.3%

### 실험 3

실험 3은 지시 대명사에 관련된 실험으로서 실어증 환자들의 화시적인 지시 대명사와 조용적인 대명사의 처리를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인칭 대명사 관련 실험이 실험 1, 2와 동일하게 화시적인 대명사는 잘 처리되되 조용적인 대명사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험자 실험 1, 2에서와 동일한 피험자.

실험 재료 및 설계 실험 재료는 총 25문항

으로 정오판정 과제와 채워넣기 과제로 실시되었다. 실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문6)** 영선이와 윤정이는 냉면을 먹고 있습니다.

윤정: ( ) 냉면 정말 맛이 없다.

영선: 그러게. 쫄면 먹자고 그랬잖아.

① 이      ② 그      ③ 저

**예문7)**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에펠탑도 있습니다.(정)

**예문8)** 저 사람이 어젯밤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 사람이지요? (오)

### 실험 절차

실험 1,2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결과 및 논의

실험 3의 결과는 실어증 환자들이 화시적인 지시 대명사 '이, 그, 저'를 조용적인 지시 대명사 '그'보다 더 잘 수행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실험1, 2와 동일한 결과를 말해주는 것으로 실어증 환자에게 있어서 인칭 대명사 뿐만 아니라 지시 대명사도 역시 화시적인 속성의 대명사가 조용적인 속성의 대명사보다 처리하기 수월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험 3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7. 실험 3의 결과

실어증	명칭성 (S)	표현성 (C.M)	표현성 (P)	표현성 (C.B)
이-/그-/저-(화시)	64.2%	78.5%	92.8%	100%
그-(조용)	54.5%	63.6%	68.9%	54.5%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화시적인 기능의 대명사와 조용적인 기능의 대명사 처리를 살펴보았다. 실험은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1인칭('나')과 2인칭('너')을 화시적인 대명사로 3인칭의 경우는 재귀사('자기')를 화시와 조용의 혼합 형태의 대명사로 대명사('그')를 조용적인 대명사로 구분하였다.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화시적인 '이, 그, 저'와 조용적인 '그'로 구분하였다.

실험1, 2, 3을 통해서 실어증 환자들은 화시적인 대명사를 가장 잘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화시와 조용이 혼합된 대명사를 잘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조용적인 대명사를 가장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일관된 수행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화시와 조용의 처리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이 둘의 연속적인 수행의 차이(grade)가 실험 결과로서 나타났다.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화시와 조용의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 양상을 보임으로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는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기존의 생성문법의 결속이론의 한계점이 밝혀졌다. 만일 결속이론에서 말한 '자기'와 '그'가 조용적인 관점에서 결속원리의 범주만 달리하는 것이라면 실어증 환자들은 이 둘을 동일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의 수행은 명백한 차이(grade)를 보인다. 따라서 Kuno(1987) 직접 담화 관점에서 '자기'와 '그'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1.에서 제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부정칭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의 화시와 조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김일웅(1982)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 한글학회.  
 서정수(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 2,  
 장석진(1984) "지시와 조용." 「한글」 186, 한글학회.  
 홍순성(1986) "'자기'와 '그'의 재귀적 용법에 관하여." 「영남어문학」 13, 영남대학교.  
 Kuno, S & Kaburaki(1977) "Empathy and Syntax." *Linguistic Inquiry* 8.  
 Kuno, S.(1987) *Functional Syntax*. Univ. of Chicago Press.